한 자리에 모인 교육개혁의 목소리들

교육개혁 연대회의 구성의 의미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 국민의 민주화에 대한 욕구는 일정정도 충족되어 졌다고 보여진다. 뜨겁던 민주화의 열기가 급한불을 끈 후 국민의 주요 관심사는 현재 주춤거리는 경제의 회생방안과 국제적 관심사인 환경문제, 교육문제, 교통문제등 일상생활에서 피부로 느끼는 사안들로 분산되었다.

특히 사 교육비 총량이 GNP 대비 6. 79%(한국교육개발원, 1990)로 정부가 지원하는 교육예산 총량인 GNP대비 3. 7%보다도 월등함이 보여주듯이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는 지난 대선에서 민자, 민주, 국민 3당후보가 모두 교육예산에 대한 사안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을만큼 현재 교육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다.

교육개선의 요구는 87년 6월 항쟁의 열기 속에서 태동되었다. 사회적·정치적 민주화 분위기에 힘입어 민주적·인간적·창의적인 교육을 지향하는 교육주체들로 구성된 단체가 하나 둘씩 증가하게 되는데, 전국교사협의회(전교협), 전국국립사범대학학생연합(전사련), 교대협, 전사협(전)등의 결성이 그것이다.

이어 지난 89년 5월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초·중·고교 교사를 중심으로 결성되고, 1천 5백여 명의 교사가 해직되는 상황 하에 교사 교육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기계적인 주입식 교육으로 대표되는 우리교육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전교조 결성에 이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가 결성되었고 중·고교학생들의 운동도 활성화되었다.

이렇게 결성되어진 각 교육주체단체들은 각자의 이해요구에 맞는 개별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 단체의 요구들이 내용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이 요구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량을 결집하여 교육당국과 공동 대응하고, 대국민 운동을 펼쳐나가야 한다는 필요를 절감하게 되었다.

이런 배경위에서 전교조를 비롯한 9개 민간교육단체들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민교협),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전국 교육대학 대표자 협의회(교대협), 전국국립사범대학생연합회(전사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전국강사노동조합(전강노), 전국대학노동조합연합(대노련),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사교련)은 '교육개혁연대회의(가칭)'를 구성하여 우리나라 교육의 민주화·인간화를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하고, 지난 6월부터 중앙단 발족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하여 오는 7일 창립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9개 단체들은 그간 한시적·사안별이지만 지난해 6월 활동한 '교육대개혁과 해직교사원상복직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본부'등 연대활동을 펼쳐왔다. 그러나 활동과정을 볼때 부문단체 요구에 대한 단순지원의 활동이 주되게 이루어졌으며, 사안과 제기에 따른 수세적이고 단절적인 연대사업으로 진행되었고, 또한 운동의 한시성, 비연속성으로 국민적 교육사안에 대한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대응이 미흡하였으며, 사업진행에 있어 전교조, 전사련, 교대협등 주요단체 중심의 연대에 국한되는 경향으로 타 단체들이 주체성이 결여되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교육개혁연대회의(가칭)'는 참여 각 단체 대표로 구성되는 대표자 회의 때 4천2백억원의 교육예산이 삭감된 결과로 5년간 교원수 동결, 수익자 부담의 강화 유류특소세를 목적세로 전환하게되었고 교육개혁에 대한 근본적 정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또한 얼마전 경제 기획원은 교육예산에 학부모 부담 수업료및 기성회비, 기부금, 중앙및 지방 정부지원분, 각 시 도 교육청의 재산매각대등을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올해 교육예산이 GNP 대비 4. 4%에 달한다고 발표하여 신정부의 교육재정 GNP대비 5%확충 실현의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민교협·전교조·한총련등 9개단체 공동 노력
부문단체들의 개혁 한계 극복위한 돌파구

이러한 가운데 오는 9월중에 출범하게 될 교육개혁 정책 수립을 주도할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의 구성형태가 주목되고 있다.

'교육개혁연대회의'는 이런 상황하에서 올 하반기에 큰 두 가지 운동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첫째는 98년까지 교육재정 GNP대비 5% 확충에 대한 구체적방안의 확보이다. 이는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최소한의 필요 조건으로서 김영삼 대통령이 내세웠던 공약이기도 하다.

둘째는 사립학교법 개정이다. 개정당시부터 재 개정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요구되었던 이 법안은 사학인 민주적발전을 위해 다시 한번 제기된 것이다.

이 두가지 목표는 앞으로 제시될 새정부의 교육개혁 청사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안들로서 '교육개혁연대회의'는 이를 위해 9월 말부터 범국민서명운동을 벌여 여론을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11월 열릴 예산국회에 청원할 예정이며 정책토론회등을 통해 이에대한 구체적 구상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영삼정권이 들어서면서 경제 교육 생활 환경등 생활적 사안들에 대한 관심이 점차로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 따라 YMCA등 소비자 시민 단체들이 점차로 교육문제를 개선시키기 위한 운동을 시작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중간시민단체들의 활동이 제자리를 찾기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주체들이 중심이 된 대중적인 운동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할수 있다.

〈박경화 기자〉

절망을 희망해보자

데스크 칼럼

이 준 희
〈본보 편집장〉

분열과 혼란의 시대에 느끼는 위기감

세상은 변하고 있다.

현존하는 가치와 질서로써는 변화의 속도와 방향을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그리고 다양하게 우리의 세계는 변해가고 있으며 우리는 그 형체들이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 좀처럼 파악하기 힘들어하고 있다.

현존하던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과 세계냉전체제의 붕괴는 분명히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으며, 우리는 그 새로움의 혼란과 혼돈에 대해 당황스러워하고 있다.

첨단 테크놀로지의 비약적인 발전이 가져온 문명사적인 전환은 우리에게 편리함과 환상을 가져다주기는 했어도 가공할이만큼 놀라운 발전의 속도와 보통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매카니즘적 속성에 기인한 혼란스러움은 새로운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질서와 규칙을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으며, 그것 자체가 또 하나의 혼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변화하는 사회 구조에 편승해가는 우리의 문화는 대중문화, 포스트모던, 신세대라는 허울을 뒤집어쓰고 마치 유령처럼 우리를 더 깊은 혼란으로 밀어넣고 있기도 하다.

우리시대를 지탱해주던 이데올로기와 철학은 새로운 시대앞에 당황스러워하고, 변화하는 세상은 우리에게 새로운 설명들을 강요하고 있다.

변화는 새로움이고 새로움은 희망이며 가능성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위기이며, 혼란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변화가 가져온 혼란스러움과 무질서속에서 위기감을 느끼게 되고, 위기감은 우리로 하여금 변화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과거의 구질서속에 안주하게 되기를 희망하게 만든다. 그러나 세상은 변했고 지금도 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두려움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 대학사회도 어쩌면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며 그 좌표와 방향감각을 잃고 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현존 사회주의의 몰락과 냉전의 종식이라는 세계사적 변화속에서 또한 우리 사회의 민주적인 진화과정을 통해 민주와 비민주, 진보와 보수, 독재와 반독재등 우리들이 늘상 느껴왔던 도식적인 사회의 경계선이 무너져버렸거나 흐은 적어도 그 경계선이 불분명해지면서 우리 대학사회의 희망이며, 당위적 역할이며 대학의 문화적 토대까지도 지배해왔던 민주, 반독재, 진보라는 공간들은 이제 더이상 새로운 질서위에서 대학사회를 지탱해주고, 응호해주고, 설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는다.

민주화라는 지상과제를 실현키 위한 대학인의 희생은 분명히 제 몫을 다하지 못했던 사회의 무시적인 동의와 박수를 받아왔었다. 그러나 세롭게 편제된 사회여건속에서 대학인들의 역할은 이제 축소를 강요당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는 그간 우리 대학이 담당해왔던 많은 역할과 몫들을 돌려받기를 원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변화돼가는 사회구조속에서 우리의 역할과 몫을 찾아내야만 한다. 그러나 그 틈바구니에 끼여 아직까지도 헤어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고 당황해 하고 있다. 아니 어쩌면 변화를 두려워하며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시대는 변했고 대학을 둘러싼 주변 환경들이 달라지고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절망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의 강의실도 새로운 변화가 가져온 혼란을 명쾌하게 정리해주고 새로운 역할을 부여해주지는 못하고 있다.

분열과 착란의 그리고 혼란과 침체의 시대에 정말이지 우리는 절망에 가득차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를 탓하며 절망에 그저 익숙해져가는 것은 너무 비극적이다. 지나간 시대의 질서에 연연해하지도 말자. 새로운 시대가 야기하는 혼란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꿈꾸며 절망을 희망해보자. 우리모두 함께.

◇출소한 전총학생회장 최만식군(사회대경영·88)군과 함께

책과 편지로 달랜 외로운 1년

지난 92년 범민족대회 준비중 중앙대에서 구속되어 지난 8월 15일 새벽 만기 출소한 최만식 제24대 수원캠퍼스 총학생회장을 만나보았다.

출소 후 만찍했다는 공간의 자유덕분인지 그의 얼굴에는 단절되었던 것 같지 않은 개강의 활기가 잔잔히 배어 있었다. 92년 범민족중앙대회 전날 대회장인 중앙대에서 무장진압한 경찰에 의해 전대협 의장등 중앙간부 6명과 함께 강제구속된 최군이 가장 처음 느꼈던 것은 아직도 국가보안법이 현존하는 우리의 현실이었다고 한다. 통일을 갈망하는 민족의 바램보다는 북한노선에 동조여부를 가려내어 국가보안법에 적용시키는 검찰의 수사태도에서 최군은 분단조국의 현실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수감후 최군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역시 임기 도중 구속되어 대표자로서 학우들과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다는 책임감이었다. 그가 거의 매일 한통씩 받아 본 3백30통의 편지를 네 다섯 번씩 읽으며 편지속에 담긴 마음을 읽으려 애썼던 것도 이러한 책임감에 나약해진 정신을 세우고 자신에게 채찍질을 가하기 위한 외로운 노력이었다.

그가 용성총련 회장으로 참가하여 제6기 전대협에서 준비하였던 지금의 한총련이 지난 6·12 김춘도 순경사건으로 난관에 부딪쳤을때 그는 무척 놀랐으나 곧 한총련이 애도를 표명하고 진상규명에 나서는 모습을 접했을때 그 순수성은 여전히 변치않았으며 다방면의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한총련이 건재한다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 작년 용성총련 출범식때 의장으로 추대되는 최만식 군

최군이 출감후 처음 학우들을 접한것은 지난 4회 범민족대회가 열린 한양대에서였다. 학우들과 인사를 나누고 용성총련에서 마련해주는 출소 환영식에 참가하면서 그가 느꼈던것은 박탈당했던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자유의 소중함이었다. 최군은 지난 일년간 자유롭지 못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경제관련서적, 시집, 소설등 다방면에 걸쳐 2백50여권의 책을 두루 섭렵했고 맨손체조, 명상, 편지 쓰기등으로 나름대로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고 애썼다고 한다.

개강후 지난 2학기에 미등록으로 제적된 학적을 복적시키고 남은 학기에는 수업에도 충실히 참여하겠다는 최군은 "주어진 일이 있다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서 굳이 학생회 간부의 일을 맡지 않더라도 작년 2학기에 다하지 못했던 역할을 다하는 의미에서 하우들의 생활속에서 항상 옳곧게 설수있는 친근한 옆집아저씨 마이클로 남고 싶습니다"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만하며 '마이클의 웃음'을 지어보였다.

〈京〉

우리의 것을 지켜나가는 젊음이 있습니다. ①

우리의 것을 지켜나가는
순수한 젊음이 있습니다.

하얀 옷, 십베자락, 북소리, 장구, 징, 꽹과리····
우리의 멋과 흥은
손짓, 어깨짓, 몸짓에 어우러져 있습니다.
국적없는 노래와 춤들로 가득찬 세상이지만
우리의 젊은이들은
진정한 우리의 아름다움과 신명을
느낄줄 압니다.
한국의 얼과 넋을 간직하려는
순수한 젊음이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우리의 것을 지켜나가는 젊은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한국전력공사